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비상 대처 훈련

이형동 | 승인 2026.05.20 13:46

신속 대처 능력 함양

▲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하고 있다.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지난 19일 초전면 소성저수지와 월곡저수지에서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했다.

이날 직원들은 집중호우 및 태풍,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 했다.

훈련은 상황에 따른 단계별 상황 보고 및 전파, 긴급 복구, 저수지 하류 주민 대피 등으로, 긴급 복구 동원업체의 긴급 복구와 저수지 붕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인명·재산 피해 최소화했다.

장규석 지사장은 "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집중호우, 태풍, 지진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고취를 목표로,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했다"며 "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선제적 대처하겠다"고 말했다.

이형동 hd60lee@naver.com

저작권자 ©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